

< 향후 20년, 통계에 나타나는 교단 과제 >

- 목 차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신규 전무출신 예측 현황
3. 퇴임 전무출신 예측 현황
4. 직무 전무출신 예측 현황
5. 전무출신 중도 포기 현황 및 분석
6. 재가교도 예측 현황
7. 통계에 나타나는 교단 과제
8. 마무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교단의 인력 구조는 출가와 재가 모두 연령대가 높은 인원이 많고, 젊은 인원이 적은 편이다. 이는 연령대가 높은 인원들이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현장에 남는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과제를 맞이할 때 그 과제를 막연히 추측만 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창황전도(倉惶顛倒)함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과제를 분명하게 예상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아무리 힘든 과제라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20년 안에 교단이 철저히 준비하여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통계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최근 10년 교단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향후 10년간 신규 전무출신 배출 현황을 예측하고, 향후 20년간 퇴임 전무출신과 직무 전무출신 현황을 예측하며, 향후 20년간 재가교도 현황을 예측함으로써 퇴임·직무 전무출신과 재가교도의 변화에 따른 교단적 과제들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신규 전무출신 예측 현황

원기 100년¹⁾부터 109까지 총부에서 출가서원식을 하고 배출된 신규 전무출신의 현황은 <표1>과 같다. 신규 전무출신은 원불교대학원(원불교대학원대학교)과 미주선학대(미주선학대학교)를 통해 배출된 교무와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직, 봉공직, 기간제 교무로 구성된다.

(단위: 명)

1) 년도는 원기를 사용하며 이하 ‘원기’ 표현은 생략한다.

구분/원기	100년	101년	102년	103년	104년	105년	106년	107년	108년	109년
원불교대학원	24	23	38	14	29	18	18	24	16	16
미주선학대	2	3	1	2	1	1	0	3	0	0
전문직	2	1	4	2	1	2	2	1	1	0
봉공직	1	0	3	0	1	2	1	0	1	1
교화직(기간제)	2	0	3	0	0	1	2	1	2	0
합계	31	27	49	18	32	24	23	29	20	17

<표1> 신규 전무출신 배출 현황

신규 전무출신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려면 현재 각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예비전무출신 현황과 예비전무출신 지원자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110년 현재 각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예비전무출신 현황은 <표2>에, 100년부터 109년까지의 예비전무출신 지원자 현황은 <표3>에 나타나 있다.

(단위: 명)

학교/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교/학년	1학년	2학년
원광대 원불교학과	5	2	4	7	원불교대학원대학교	9	21
영산선학대	1	8	6	8	미주선학대학교	1	1
합계	6	10	10	15	합계	10	22

<표2> 원기110년 예비전무출신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원기	100년	101년	102년	103년	104년	105년	106년	107년	108년	109년	110년
지원자	32	28	31	28	24	27	22	20	15	13	15
탈락자 (비율%)	14 (43.7)	15 (53.6)	12 (38.7)	12 (42.9)	14 (58.3)	11 (40.7)	5 (22.7)	8 (40.0)	7 (47.0)	3 (23.1)	2 (13.3)
휴학자	1	0	0	4	5	1	5	2	3	3	1
현재 인원	17	13	19	12	9	10	12	10	5	7	12

<표3> 예비전무출신 지원자 현황

<표3>을 보면, 예비전무출신 지원자 모두가 신규 전무출신으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대부분 현장으로 나간 100년부터 104년까지 지원자의 경우, 많게는 53.6%, 적게는 38.7%가 미등록·제적·자퇴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하였으며 그 평균 탈락률은 47.4%였다. 또한 대부분 아직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105년부터 110년까지 지원자의 경우도 많게는 47%, 적게는 13.3%가 중도 탈락하였으며 그 평균 탈락률은 29.2%였다.

신규 전무출신에 대한 미래 예측은 <표2>와 <표3> 그리고 <표1>에 나타난 전문직·봉공직·기간제 교무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표1>에 있는 100년부터 109년까지 배출된 전문직·봉공직·기간제 교무의 연평균을 내 보면 3.7명이 나오는데 이를 4명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면 110년 신규 전무출신은 이 4명과 <표2>에 나타난 원불교대학원 2학년 21명, 미주선학대 2학년 1명을 합하여 26명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중도 탈락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수치이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111년은 전문직·봉공직·기간제 교무 4명과 원불교대학원 1학년 9명, 미주선학대 1학년 1명을 합하여 14명이 예상되며, 112년은 전문직·봉공직·기간제 교무 4명과 학부 4학년 15명을 합하여 19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학부 1,2,3학년의 경우에는 편입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113년부터는 예비전무출신 재학생 수보다 지원자 추이를 참고하여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3>에 있는 지원자 추이를 보면, 100년부터 103년 사이는 지원자가 30명 전후였으나, 코로나 시기인 104년부터 107년 사이에는 지원자가 20명대로 내려가고, 108년부터 110년까지는 10명대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자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바 이는 청소년 교화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원자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104년부터 110년까지 지원자를 참고하여 향후 신규 전무출신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104년부터 110년까지 지원자의 평균은 19.4명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중에는 수학 기간 동안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용해야 신규 전무출신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 현장으로 나간 100년부터 104년까지 지원자의 평균 중도 탈락 비율 47.4%²⁾를 적용하면 연평균 신규 전무출신은 약 1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문직·봉공직·기간제 교무 4명을 더 하면 매년 약 14명이 신규 전무출신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단의 교화 상황에 따라 이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10년부터 120년까지의 신규 전무출신 예상 배출 인원은 <표4>와 같다.

(단위: 명)

구분	110년	111년	112년	113년	114년	115년	116년	117년	118년	119년	120년
합계	26	14	19	14	14	14	14	14	14	14	14

<표4> 신규 전무출신 예측 현황

110년 26명, 111년 14명, 112년 19명 그리고 113년부터 120년까지는 매년 14명으로 예측된다.

3. 퇴임 전무출신 예측 현황

퇴임 전무출신에 대한 예측은 현재 퇴임자 수에 향후 예측되는 퇴임자를 더하고, 예상되는 열반자 수를 뺌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다행히 이에 대한 연구가 109년 정책연구소 17차 혁신세미나에서 발표된 「전무출신 노후 복지의 현실과 진단(인적·재정 구조를 중심으로)」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110년부터 130년까지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퇴임 전무출신 현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원기108년 09월 25일 기준 559명, 열반예상 비율3.14% 적용, 단위:명)

구분	110년	111년	112년	113년	114년	115년	116년	117년	118년	119년	120년
예측퇴임자	11	24	43	43	42	59	53	48	53	50	50
예측열반자	18	18	19	19	20	21	22	23	24	25	26
연말누적퇴임자	531	537	561	585	607	645	676	701	730	755	779

2) 100년부터 104년까지 지원자 중 현재 휴학자가 9명인데, 만약 이들이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평균 중도 탈락 비율은 최대 53.1%까지 증가할 수 있다.

구분	121년	122년	123년	124년	125년	126년	127년	128년	129년	130년
예측퇴임자	44	45	59	42	60	48	49	52	35	50
예측열반자	26	27	28	28	29	30	31	31	31	32
연말누적퇴임자	797	815	846	860	891	909	927	948	952	970

<표5> 퇴임 전무출신 예측 현황

‘전무출신규정’에 따르면 퇴임 정년은 71세이지만 68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원에 따라 소정의 심의를 거쳐 퇴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표5>의 예측퇴임자는 정년 71세를 기준으로 해당 퇴임자의 출생연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조기 퇴임자가 있을 경우 예측퇴임자 수와 실제 수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10년의 예측퇴임자는 11명이었으나 실제 퇴임자는 25명이었다. 그러나 퇴임 정년이 71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누적 퇴임자 수는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표5>를 보면 예측퇴임자는 112년에서 130년까지 매년 40~50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연말 누적퇴임자 수는 112년부터는 매년 20~30명씩 증가한다. 그 결과, 110년 현재 531명인 연말 누적 퇴임자 수는 120년에 779명, 130년에는 970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110년 현재 기준으로, 10년 뒤에는 46.7%인 248명이, 20년 후에는 82.7%인 439명이 증가하는 수치다.

참고로 <표5>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연말 누적 퇴임자는 원기 136년에 1,00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4. 집무 전무출신 예측 현황

집무 전무출신은 ‘현장 전무출신’ 합계에서 비집무자³⁾와 제적·자퇴자를 빼면 된다. 따라서 익년의 집무 전무출신을 예측하려면 익년 ‘현장 전무출신’과 익년 예상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 수를 파악해야 한다.

익년 ‘현장 전무출신’은 당해 연도의 집무자와 비집무자 합계에서 퇴임하는 전무출신을 빼고, 신규 전무출신을 더하면 된다. 한편 익년 예상되는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 수는 100년부터 109년까지 발생한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의 비율을 산출한 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00년부터 109년까지 집무자와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 현황은 <표6>과 같다.

(단위: 명)

구분/원기	100년	101년	102년	103년	104년	105년	106년	107년	108년	109년
집무자	1,399	1,402	1,391	1,374	1,363	1,355	1,343	1,343	1,344	1,303
비집무자	185	164	168	196	177	184	184	184	188	219
합계	1,584	1,566	1,559	1,570	1,540	1,539	1,527	1,527	1,532	1,522
제적·자퇴	17	15	3	12	10	24	8	10	21	21

<표6> 집무자, 비집무자, 제적·자퇴 현황

3) 비집무자에는 휴무, 휴양, 휴역 전무출신이 있다.

100년부터 109년까지 발생한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의 현황을 보면, 이들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의 비율은 최근 5년(105년~109년) 발생한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표6>의 자료를 참조하여 105년부터 109년까지 발생한 비집무자의 평균 비율을 계산하면 12.54%이고, 제적·자퇴자의 평균 비율을 계산하면 1.10%이다.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110년부터 13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집무 전무출신 현황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퇴임 전무출신 현황과 신규 전무출신 현황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산출한 <표5>와 <표4>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다만 <표4>에는 신규 전무출신에 대한 향후 10년 예측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와 젊은층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가 그리고 청소년 교화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예측 경향을 20년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110년부터 130년까지의 집무 전무출신 현황은 <표7>과 같다.

(단위: 명)

구분	110년	111년	112년	113년	114년	115년	116년	117년	118년	119년	120년
집무자	1,327	1,304	1,269	1,229	1,192	1,139	1,093	1,052	1,007	965	923
비집무자	193	189	184	179	173	166	159	153	146	140	134
합계	1,520	1,493	1,453	1,408	1,365	1,305	1,252	1,205	1,153	1,105	1,057
제적·자퇴	17	17	16	16	15	15	14	13	13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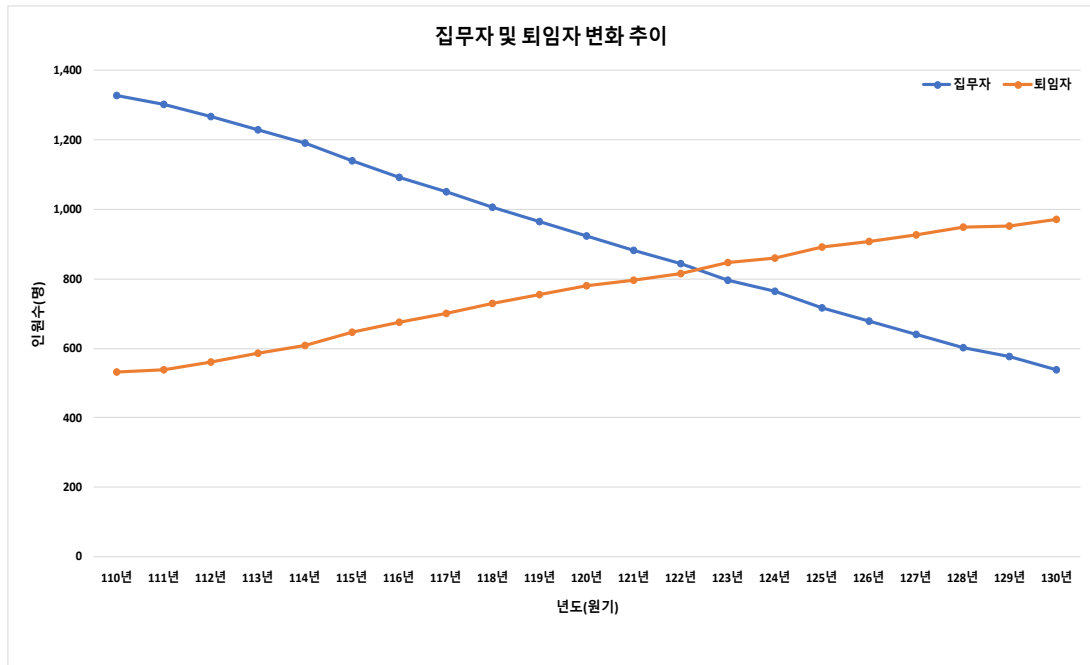
구분	121년	122년	123년	124년	125년	126년	127년	128년	129년	130년
집무자	882	845	797	764	716	678	641	601	576	539
비집무자	128	123	116	111	104	99	93	87	84	78
합계	1,010	968	913	875	820	777	734	688	660	617
제적·자퇴	11	11	10	10	9	9	8	8	7	7

<표7> 집무자, 비집무자 예측 현황

앞서 <표5> 퇴임 전무출신 예측 현황에서 보듯, 112년부터는 전무출신이 매년 40~50명씩 퇴임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표7>에서도 112년부터는 집무 전무출신이 매년 약 40명 전후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 결과, 110년 현재 1,327명인 집무 전무출신은 120년에는 923명, 130년에는 539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110년 현재 기준으로, 10년 후에는 30.4%인 404명이, 20년 후에는 59.4%인 788명이 감소하는 수치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신규 전무출신 배출 현황이나 비집무자 및 제적·자퇴자의 비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무출신 정년 제도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매년 40~50명의 전무출신이 퇴임하는 구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의 큰 흐름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아래 <그림1>에 110년부터 130년까지의 집무자 및 퇴임자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고, <표8>에 121년부터 130년까지의 집무자 및 퇴임자 예측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림1> 집무자 및 퇴임자 변화 추이

구분	121년	122년	123년	124년	125년	126년	127년	128년	129년	130년
집무자	882	845	797	764	716	678	641	601	576	539
퇴임자	797	815	846	860	891	909	927	948	952	970

<표8> 집무자 vs 퇴임자 예측 현황

<그림1>과 <표8>을 종합해보면 110년 현재에는 집무자가 퇴임자의 2배 이상이지만, 123년부터는 퇴임자가 집무자보다 많아지며, 130년 이후에는 퇴임자가 집무자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른 인구 구조 변화이다.

5. 전무출신 중도 포기 현황 및 분석

아래 <표9>는 집무·비집무로 현장에 있는 전무출신의 제적 및 휴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해당 년도는 100년, 108년, 109년이다.

(단위: 명)

급수	100년			108년		109년	
	집무+비집무(명)	제적·휴역(비율%)		집무+비집무(명)	제적·휴역(비율%)	집무+비집무(명)	제적·휴역(비율%)
1	590	7 (1.2)	생략	766	6 (0.8)	780	8 (1.0)
2	371	10 (2.7)		227	4 (1.8)	204	6 (2.9)
3	262	8 (3.1)		191	13 (6.8)	193	10 (5.2)
4	232	24(10.3)		198	15 (7.6)	200	18 (9.0)
5	165	14 (8.5)		118	18(15.3)	104	19(18.3)
합계	1620	63 (3.9)		1500	56 (3.7)	1481	61 (4.1)

<표9> 전무출신 제적·휴역 현황

<표9>를 보면, 전무출신 중도 포기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원기 100년 대비 109년 제적·휴역 비율은 3.9%에서 4.1%로 나타난다. 숫자만 놓고 보면 미세한 차이로 보일 수 있으나, 세부 수치를 보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중간세대라 볼 수 있는 3급 전무출신의 이탈률은 3%에서 5~6%대로 증가했으며, 4·5급 전무출신의 이탈률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꺾충 뛰었다. 특히, 5급 전무출신의 109년 이탈률은 18.3%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4·5급 전무출신의 전체수는 4급이 14%, 5급이 37% 감소했는데, 이탈률 또한 아래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교법해석실천연구회 모임에서 3~5급 전무출신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2%가 교역자 생활을 그만둘 것을 고려 중이며, 15.3%가 전무출신 집무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무출신 중도 포기율의 증가, 특히 30·40대의 절대적 감소와 이탈율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면, 교단 전무출신 인력 구성은 위의 <그림1>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가파른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전무출신의 감소 및 구성 변화 추세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보다도 몇 배 더 급격하다. 이러한 감소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외부 조건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사회보다 더 가파른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청된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전무출신 중도포기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5급 전무출신들은 휴무의 원인으로 1위 조직문화에 대한 피로 70.3%, 2위 업무 과중 및 피로 52.5%, 3위 인간관계 갈등 및 스트레스 49.5%라고 답했다(응답수 기준)⁴⁾. 휴역의 원인으로는 1위 조직문화에 대한 피로 53.2%, 2위 교단 비전 불투명 48.1%, 3위 개인적 비전 불투명 46.8%라고 답했다(응답수 기준). 가중총점 기준으로 보면 휴무의 원인은 1순위 조직문화에 대한 피로, 2순위 인간관계 갈등, 교단 비전 불투명, 3순위 업무과중 및 피로, 교화 무력감, 개인적 비전 불투명으로 답했고, 휴역의 원인으로는 1순위 교단 비전 불투명, 2순위 조직문화에 대한 피로, 개인적 비전 불투명, 3순위 교화무력감, 인간관계 갈등,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휴무·휴역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함께 근무하는 전무출신들과의 관계 갈등, 근무지의 권위적·위계적 조직 문화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때 휴무를 하게 된다. 휴무자 다수는 1~3년간의 휴식 및 치료 기간 후 복귀하기도 하지만, 몇 년 근무 이후 결국 휴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최종적으로 휴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4) ‘전무출신 중도 포기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지난 2025년 6월 18~26일, 원기 95년 출가부터 현재까지의 전무출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24명이 응답했다. ‘응답수 기준’이란 124명 중, 각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 수(최대 5개 이하 복수 선택)를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한 것을 가리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원인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대중적 공감도를 반영한다. ‘가중총점 기준’이란 선택한 항목 5개에 1~5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응답을 바탕으로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을 말한다. 해당 원인에 대한 체감 감도와 중요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 안에서 자기 미래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휴무·휴역을 선택하게 되는 위의 원인들은 사실 서로 맞물려 있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관계 갈등 속에서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및 피로·질병이 증가하면서, 공부 및 교화로 에너지가 흐르지 못한다. 이는 다시 교화 감소 및 미래 불투명, 개인의 정체로 이어져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휴역의 최종적 원인은 결국 개인의 서원·신심, 역량 부족에 있다는 점을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젊은 세대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황 변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재가교도 예측 현황

재가교도에 대한 예측은 1년에 1회 이상 법회를 참석한 재가교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같은 사람이 1주일에 법회를 2번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도 1명으로 계산했으며, 재가교도에는 어린이, 학생, 대학생, 청년, 일반 재가교도를 모두 포함한다. 아래 <표10>은 10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이고, <표11>은 109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이다.

(연령대 단위: 세, 참석자 단위: 명)

연령대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참석자	1,386	2,032	1,989	1,973	2,063	1,706	2,113	2,351	3,080	3,561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86이상	합계
4,601	4,812	3,795	3,466	3,167	2,546	1,667	973	47,281

<표10> 10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연령대 단위: 세, 참석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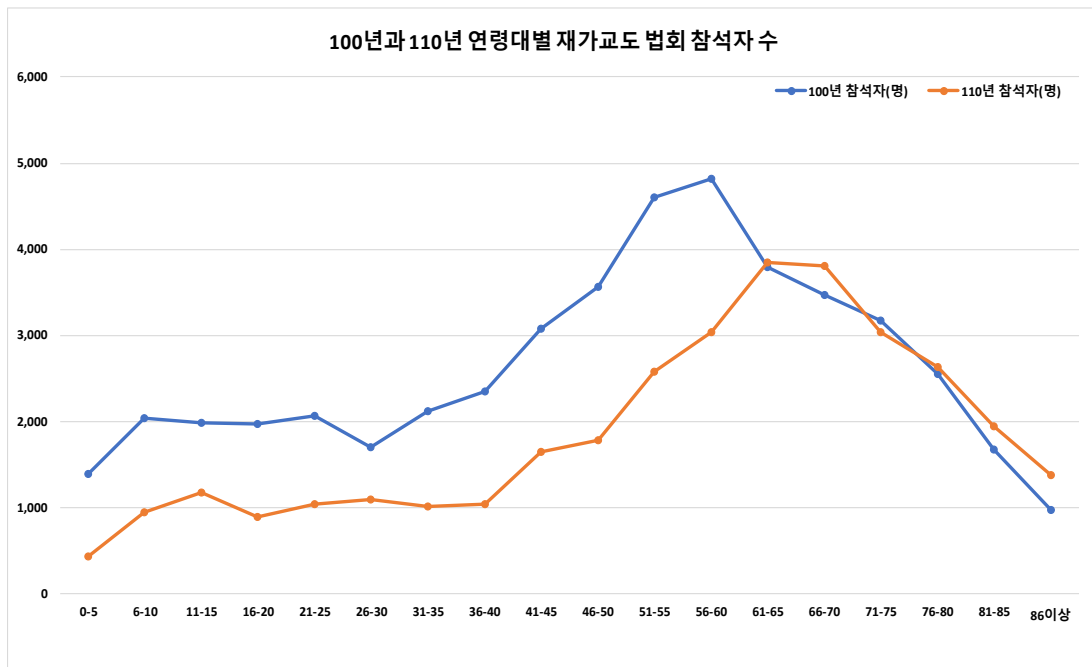
연령대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참석자	433	950	1,173	893	1,038	1,090	1,010	1,042	1,645	1,781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86이상	합계
2,574	3,036	3,853	3,812	3,039	2,631	1,945	1,380	33,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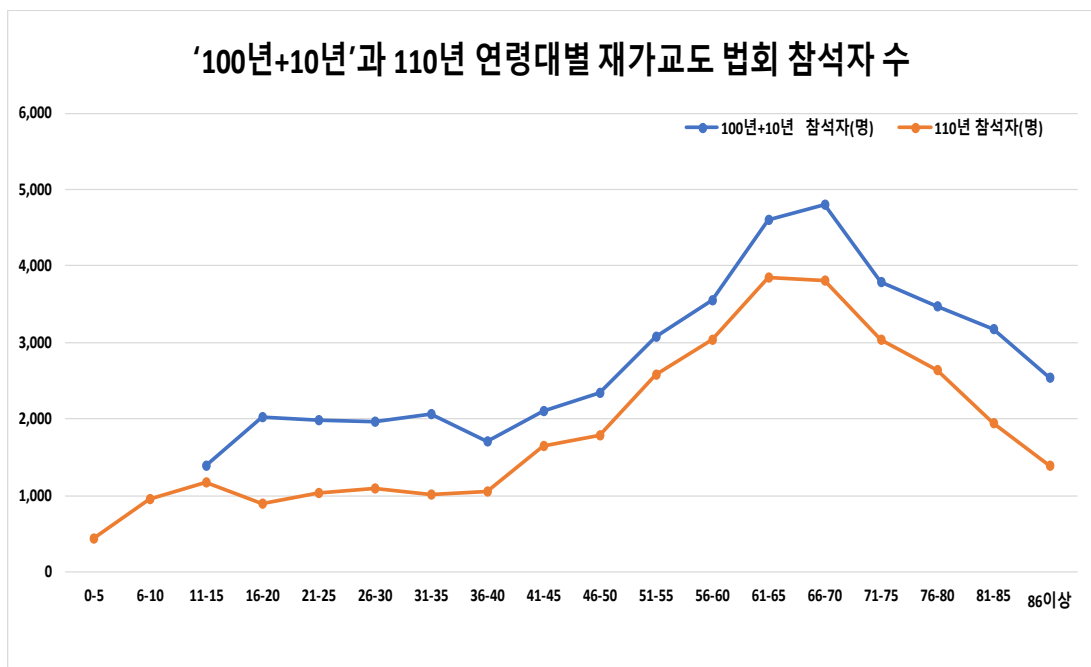
<표11> 109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전체 법회 참석자 수는 100년은 47,281명, 109년은 33,325명이다. 9년 동안 13,956명이 줄었는데, 이는 1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30%가 감소한 수치이다. 10년 단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100년 수치와 아울러 110년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후 109년 수치를 110년 수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2>는 100년과 110년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또 <그림3>은 '100년+10년'과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00년+10년'이란 10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가 변함 없이 그대로 10년 후에도 유지된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림2> 100년과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그림3> ‘100년+10년’과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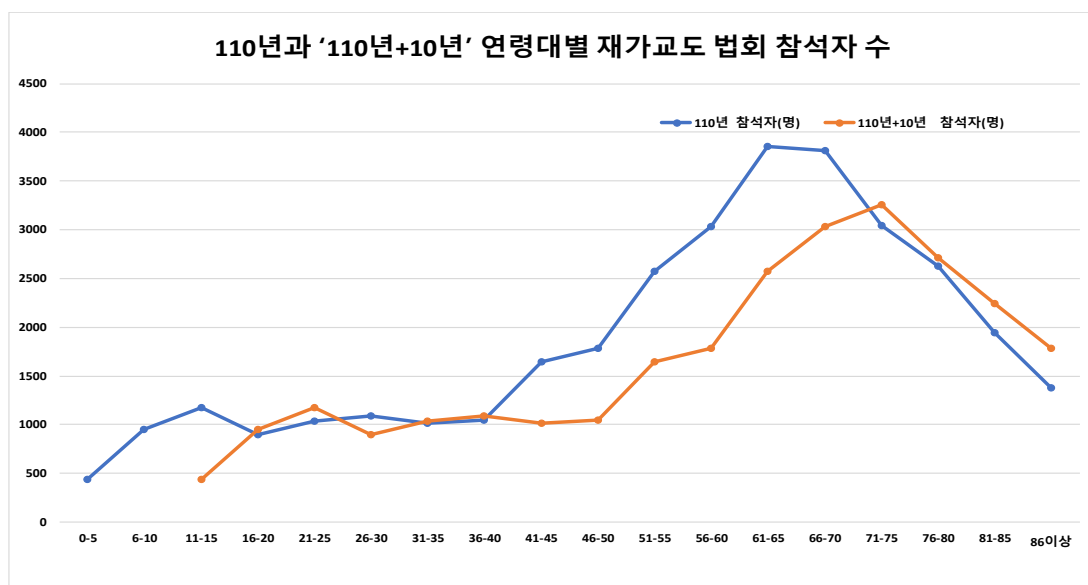
<그림2>에서 100년과 110년의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100년에는 50대에서 참석자 수가 4,700명 정도로 가장 많고, 10년 후인 110년에는 60대에서 참석자 수가 3,800명 정도로 가장 많다. 이는 10년 전 참석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가 10년 후 60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수는 900명 정도가 줄었다. 이는 노령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100년과 110년의 두 그래프를 보면, 우측 하향 곡선의 기울기가 비슷한데, 이는 노령화에 따른 신체의 불편함으

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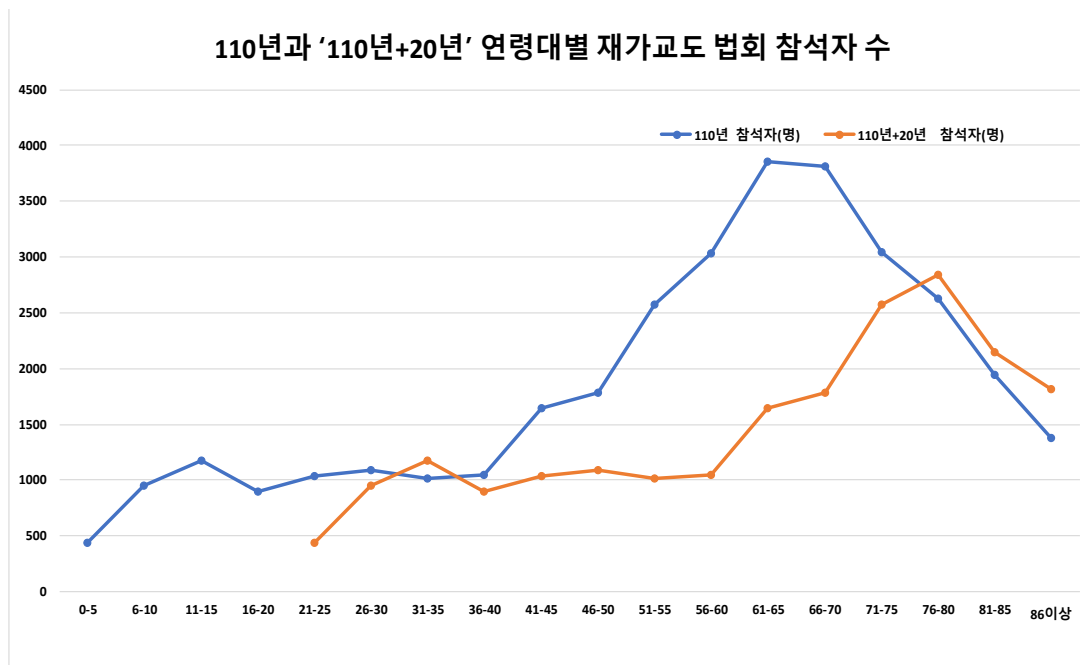
또 100년 보다 110년 참석자 수가 60세 이하에서는 적지만, 61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많다. 이는 60세 이하 젊은 층 교화가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00년 수치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감소폭을 계산해 보면, 10대 이하는 60%, 10대는 48%, 20대는 44%, 30대는 54%, 40대는 48%, 50대는 40%가 감소하였다. 한편 100년 보다 110년 참석자 수가 60세 이상에서 대부분 많은 것도 그 연령대의 교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그림3>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3>에서 '100년+10년'과 110년의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100년+10년' 보다 110년 참석자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100년 때의 참석자 중에 중도 이탈자가 있다는 말이다. 새롭게 법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중간에 이탈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두 그래프 사이의 폭이 넓을수록 그 연령대의 이탈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 60대, 80대의 이탈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그림2>에서 100년 보다 110년 참석자 수가 60세 이상에서 대부분 많은 것은 100년 때 높은 수치를 보인던 50대와 60대가 노령화로 60대와 70대로 이동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4>는 110년과 '110년+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10년+10년' 그래프는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가 변함 없이 그대로 10년 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110년 그래프를 우측으로 10년 이동한 그래프다. 다만, 이때 노령화에 따른 신체의 불편함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우측 곡선은 110년과 비슷한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러한 '110년+10년' 수치는 120년의 참석자 수를 예측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그림5>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10년과 '110년+2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10년+20년' 수치는 110년 수치가 향후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30년의 참석자 수를 예측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4> 110년과 '110년+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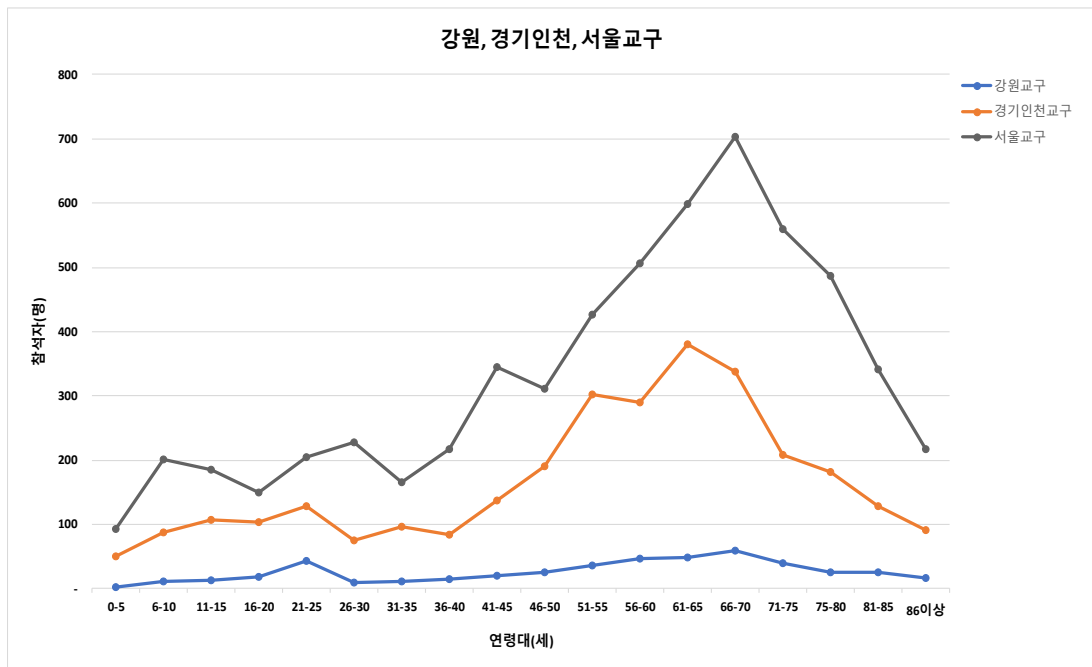


<그림5> 110년과 '110년+2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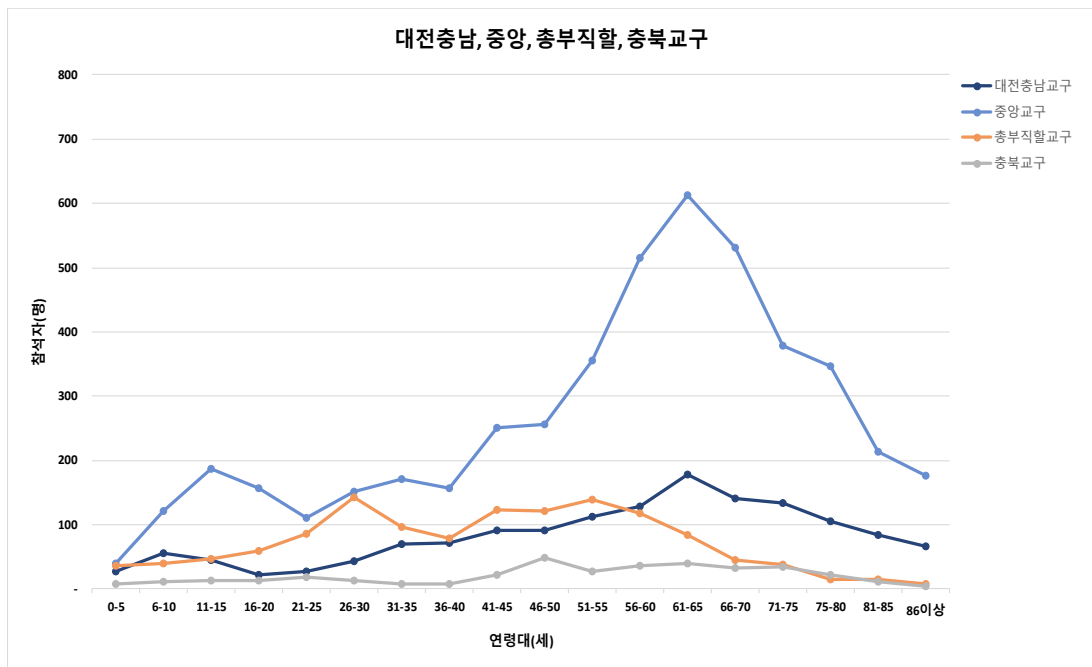
<그림4>에서 110년과 '110년+10년'의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110년에는 참석자 수가 60대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와 70대에서 많으나, 120년에는 70대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와 80대에서 많다. 또 40대에서 60대까지는 110년 참석자 수가 많고, 70대 이상에서는 120년 참석자 수가 많다. 110년 대비 120년에는 법회 참석자 수가 약 6,7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율로는 약 20%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신체의 불편함과 열반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신입교도 참석자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0년 동안 신입교도의 참석이 많이 될수록 그 수치는 낮아질 것이다.

<그림5>에서 110년과 '110년+20년'의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110년에는 참석자 수가 60대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와 70대에서 많으나, 130년에는 70대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80대와 60대에서 많다. 또 40대에서 70대 전반까지는 110년 참석자 수가 많고, 70대 후반부터는 130년 참석자 수가 많다. 110년 대비 130년에는 법회 참석자 수가 약 12,9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율로는 약 39%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신체의 불편함과 열반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신입교도 참석자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년 동안 신입교도의 참석이 많이 될수록 그 수치는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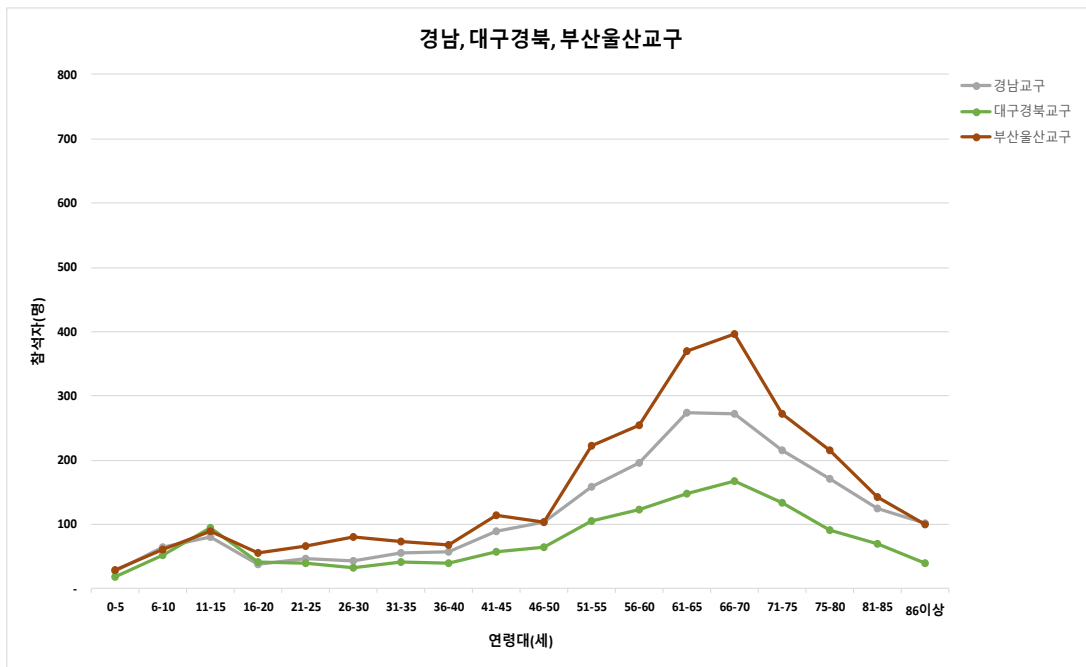
참고로, 아래 <그림6>, <그림7>, <그림8>, <그림9>는 각 교구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그 자료는 109년 수치를 110년 수치로 사용하였다. 각 교구 그래프를 연령대의 가로축 우측으로 10년, 20년 이동시키면 그 교구의 10년, 20년 후의 교화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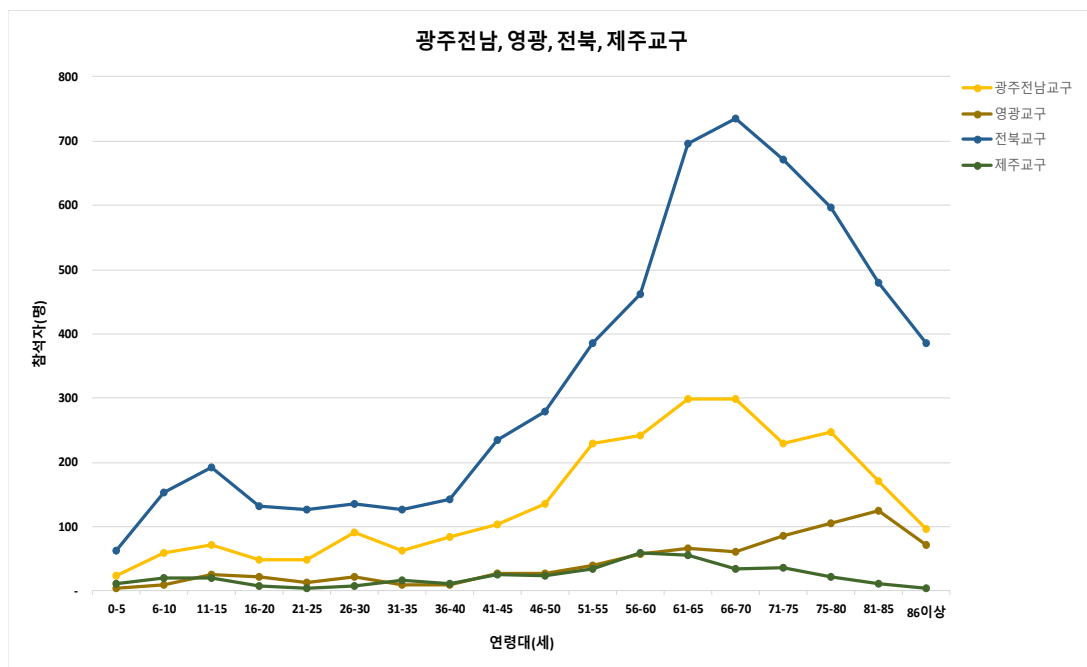
<그림6> 교구별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1



<그림7> 교구별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2



<그림8> 교구별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3



<그림9> 교구별 110년의 연령대별 재가교도 법회 참석자 수 4

7. 통계에 나타나는 교단 과제

앞에서 살펴본 신규 전무출신의 감소, 퇴임 전무출신의 급격한 증가, 집무 전무출신의 급

격한 감소, 전무출신 중도 포기 현황, 재가교도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20년 안에 교단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8개로 정리해 보았다.

1) '퇴임자 정양 문제' 해결 과제

112년부터 연말 누적퇴임자 수가 매년 20~30명씩 증가한다. 그 결과, 110년 현재 531명인 연말 누적 퇴임자 수는 120년에 779명, 130년에는 970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110년 현재 기준으로, 10년 뒤에는 46.7%인 248명이, 20년 후에는 82.7%인 439명이 증가하는 수치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136년 1,00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후생사업회 연평균 수입액에서 퇴임자 관련 연평균 지출액을 뺀 차액은 약 -6.8억원이다. 이는 퇴임자 관련 지출이 수입보다 매년 약 6.8억원 더 많다는 말이며, 현재도 퇴임자 정양 비용을 충당하는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집무 전무출신의 급격한 감소와 재가교도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증가하는 퇴임자 정양을 이제까지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양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퇴임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정양 형태(사가, 지역, 중앙정양)를 달리 하는 방법, 지역 정양에는 집무 전무출신의 부족으로 전무출신이 발령나지 않은 빈 교당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00세 시대, 퇴임 후 거의 20~30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하는 퇴임자들이 어떻게 보람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2) '집무 전무출신들의 인사문제와 업무과중' 해결 과제

110년 현재 1,327명인 집무 전무출신은 120년에는 923명, 130년에는 53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10년 현재 기준으로, 10년 후에는 30.4%인 404명이, 20년 후에는 59.4%인 788명이 감소하는 수치다.

이렇게 집무 전무출신이 급격히 감소하면 전무출신이 배치되지 않는 교당과 기관이 점차로 더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전무출신 인사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 교당의 경우 통폐합이나, n명의 전무출신이 'n+α'개 교당을 교화하는 공동 교화 형태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무출신이 배치되지 않는 교당과 기관의 경우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요청된다.

한편, 전무출신이 급격히 감소하면 집무 전무출신의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 일에는 선후(先後)와 본말(本末)이 있는바,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눈 앞에 닥친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볼 때 정작 근본되는 일에 소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당에서 우선 급한 회계와 행정 및 도량 관리 등을 하다가 정작 정신개벽을 위해 필요한 법회나 교화단으로 상시훈련을 정착하는 일 등에 소홀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행정 업무 등을 단순화 하고, AI나 로봇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또 전무출신이 업무 과중으로 심신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교단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도 요청된다.

3) '행정력 소모 문제' 해결 과제

향후 집무 전무출신과 재가교도의 감소에 대비하여 현재 총부와 14개 교구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직이 방만하면 인력과 재정 및 행정력의 소모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총부와 교구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효율적인 총부와 교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 개편을 할 경우, 교단이 이제까지 추구해 온 교구자치제가 확대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조직 개편을 늦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재가 교역자 양성 문제' 해결 과제

「원불교 교헌」 전문(前文)에는 '재가·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共和制度)의 체제와 십인일단(十人一團)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 하라고 밝혀져 있다. 이같이 교헌에 재가와 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교단이 교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집무 전무출신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재가와 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교회의 주역이 될 것을 독촉하고 있다. 이제는 출가 중심의 교역자 제도만으론 교단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물론 지금도 재가 교역자 제도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재가 교역자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교역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4~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출가 교역자에 비해 재가 교역자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교역자의 자격을 갖춘 재가 교역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어떻게 그러한 교육과정과 제도를 마련하여 재가와 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5) '교당·교구·총부의 재정 감소 문제' 해결 과제

현재 대부분 교당의 재정은 재가교도의 헌공금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가교도가 노령화와 열반으로 감소하면 자연히 교당의 재정은 어렵게 된다. 향후 10년 후부터는 재가교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에 그에 따라 교당의 재정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교구 교금과 총부 교금도 자연히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어떻게 헌공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교당·교구·총부가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교단 초창기 '저축 조합 운동' 때 재래의 여러 명절 휴일을 줄여 특별 노동 수입을 저축한 전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교당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총부가 재정 자립을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듯이 교구도 재정 자립을 위해 사업체 운영 등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6) '젊은 세대의 교회 활성화 문제' 해결 과제

재가교도의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20년 후의 교단을 생각할 때 50

대 이하 젊은 세대의 교화가 절실하다. 젊은 세대의 교화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그 세대를 이해하는 젊은 전무출신들이 해야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의 교화를 위해서는 30~40대 젊은 전무출신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장 전무출신 중 1급 전무출신이 50%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2~3급의 젊은 전무출신들은 대부분 교화의 보조자로 살고 있으며, 주임교무가 되어 주체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혹 주어진다 해도 활발히 교화하기 쉽지 않은 4~6급지 교당이 많다. 적어도 2~3급지 교당에서 2~4급의 젊은 전무출신들이 주체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젊은 전무출신들이 주체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교단은 1급 전무출신이 50% 이상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무출신 연조에 따른 급수 제도를 유지하며, 그 급수에 따라 직책을 주고 지도인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비록 열반하신 여래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급수가 높지 않으면 주임교무로 나갈 수 없으며, 20여년 정도 근무하지 않으면 법강향마위로 승급하기도 또 수위단원으로 피선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 교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기 쉽지 않으며, 전무출신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직된 조직문화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젊은 세대의 교화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교단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젊은 전무출신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 젊은 세대의 교화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7) '교법의 현실 구현 문제' 해결 과제

『불교정전』 사대강령 중 '불교보급'⁵⁾에는 '그 불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용(有用)한 사람이 되어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고 보면, 그 불법은 자연히 보급된다'는 내용이 있다. 불법이 자연히 보급된다는 것은 교화가 자연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바, 불법을 사용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을 주면 교화가 자연히 된다는 말이다.

최근 10년, 예비전무출신과 현장 전무출신 그리고 재가교도의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왜 그들은 교단을 떠날까? 만약 교단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교단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교단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불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불법을 사용하자는 것은 교법을 실천하자는 것이며, 마음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원불교 교화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 설교 중심이었다. 이러한 방식만으론 개인적 욕구가 다양해진 현대인에게 고루 도움을 주는 것이 쉽지 않다. 현대인의 탈종교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전통 중

5) 『정전』 사대강령 중 '불법활용'은 원기 28년 발행된 『불교정전』에는 '불교보급'으로 되어 있다.

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나 내면의 깊이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세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 교화는 상호 소통과 참여 그리고 체험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현대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염불·좌선 등 정기훈련과목을 활용한 법회, 문답·감정·해오의 활용 그리고 교화단을 통한 상시훈련 등을 현대인에게 맞게 재구성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산종사께서는 『교리실천도해』의 끝장 ‘교단의 체제’에서 ‘공부위주(工夫爲主) 교화종(教化從), 교화위주(教化爲主) 사업종(事業從)’을 밝혀 주셨다. 마음공부를 주(主)로 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인과보응의 신앙으로 자신·가정·직장 생활이 좋아지므로 주변에도 마음공부를 권하게 돼 자연히 교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 또 교화가 활성화 되면 반드시 신심·공심이 살아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마음공부에 소홀하면서 교화와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이 인과의 순리에 맞지 않다.

요컨대 출가재가의 중도 탈락 비율을 낮추고, 순리에 맞는 교화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불법을 사용하여 재가·출가 교도 그리고 현대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8) ‘법위사정 제도 정립 문제’ 해결 과제

원불교를 개교한 동기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樂園)으로 인도하려 함’이다. 곧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다. 이를 한 마디로 하면,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며,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교단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다.

우리 교단은 110년의 역사 속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소태산대종사 재세 때와 비교하면, 출가재가 교도 수와 교당·기관 수가 수십 배 혹은 수백 배는 늘었을 것이다. 그러면 교단이 ‘정신 세력의 확장’도 그만큼 더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는 것은 ‘견성(見性) 양성(養性) 솔성(率性)’하여 삼대력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삼대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고, 삼대력을 측정하는 것은 법위사정이다. 과연 교단에 그러한 삼대력의 내실을 갖추어 법위가 향상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출가재가 교도 모두 60-70대가 가장 많고, 그 연령대에 법강항마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0대·40대·30대 이하로 내려오면서 교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많은 법강항마위 도인들의 법력이 후대의 교화 성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도인들의 법력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충분한 훈련으로 삼대력을 내실있게 갖추어 진급하였는지 돌아보게 한다.

충분한 훈련으로 삼대력을 내실있게 갖추어 진급한 항마·출가·여래 도인들이 많아지면 후대의 교화 성장은 자연히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원불교 훈련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는 것은 정신 세력의 확장을 촉진하는 일이 되고, 연조와

상관없이 삼대력의 정도에 따라 법위사정하는 제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정신 세력의 확장을 독려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화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있다. 정신 세력의 확장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훈련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와 법위사정 제도 정립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8. 마무리

이제까지 ‘향후 20년, 통계에 나타나는 교단 과제’를 살펴 보았다. 향후 20년, 통계에 나타나는 교단 상황은 신규 전무출신의 감소, 퇴임 전무출신의 급격한 증가, 집무 전무출신의 급격한 감소, 재가교도의 감소 등이다. 교단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느낌이다.

이 시기에 우리 교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8개로 정리해 보았다.

- 1) ‘퇴임자 정양 문제’ 해결 과제
- 2) ‘집무 전무출신들의 인사문제와 업무과중’ 해결 과제
- 3) ‘행정력 소모 문제’ 해결 과제
- 4) ‘재가 교역자 양성 문제’ 해결 과제
- 5) ‘교당·교구·총부의 재정 감소 문제’ 해결 과제
- 6) ‘젊은 세대의 교화 활성화 문제’ 해결 과제
- 7) ‘교법의 현실 구현 문제’ 해결 과제
- 8) ‘법위사정 제도 정립 문제’ 해결 과제

이러한 엄중한 교단적 과제 앞에 그 해결을 위한 교단 수뇌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교단 수뇌부가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10년, 20년 후, 그들은 후진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과제는 교단 수뇌부만 애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교단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전 구성원들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똑바로 보며, 함께 고민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해결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통계에 근거하여 교단이 직면한 난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고,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각 난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